

### 불자 세상보기

# 무엇을 위한 생명공학인가

평생 무소유와 청빈함을 지키며 살다 지난 14일 임직중 조계종 원로의원 응담스님의 삶이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모아돈 보시금 7천만원을 생령나눔실천회 등 불교단체에 내놓기도 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부리는 현대인들이 세상의 이런 삶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부처님은 청빈과 무소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알아보자.



## 청빈

### “흠치려는 마음 끊게 하라”

■ 밝은 달이 이지러짐 없이 청정한 장애가 없듯이, 늘 참회하는 마음을 갖출 것이며, 몸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조금도 신란함이 없이 법도대로 하여 청정을 유지해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월유경〉**

■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 지라도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벼슬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불비니항경〉**

■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울의 사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선근을 키워야 하느니라. 네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삼매를 닦게 하려면 더욱 흠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래신불제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능엄경〉**

■ 탐욕에 탐욕심을 내고 그 탐욕 때문에 더욱 미혹하여 미친 듯 날뛰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니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살생의 업이 쌓이는 줄을 마냥 모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집이함경〉**

■ 작은 악을 대다지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간담(탐심이 많음)의 마음 때문에 온갖 부정 한 것을 탐하게 되니, 보시를 즐겨 행하여 청정한 과보를 얻는다. **〈제법집요경〉**

■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중일아함경〉**

■ 청정한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게 되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마음이 청정한 것은 우주법계의 세계로 더러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주(主)를 삼는 것이니,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 청정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심지관경〉**

■ 차라리 도(道)를 지키다가 빈천 속에서 죽을 지언정, 도에서 벗어난 것을 하며 남의 것을 탐내고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육도집경〉**

어릴 때 옹고집전을 읽으면서 스님의 신통술을 기이하게 여긴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공학이 신통술을 부리며 옹고집을 현실화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은 ‘옹고집’을 단순 복제하는 차원을 넘어 ‘옹고집’의 신체나 성격까지 조작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다. 체세포 복제, 유전자 진단, 체외수정, 인간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치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전자 선택을 통해 미국에서는 캔코니 빈혈증이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그 동생을 출산하고, 프랑스에서도 맞춤형기가 태어났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런 분별 유전병 예방 및 치료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신체적 자율권과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불행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치료하

## 맞춤아기 탄생은 인간의 제품화

는 ‘소극적 우생학’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끝 간 데 모를 인간의 욕망은 질병 치료를 넘어 자질 함양을 위한 유전자 조작, 즉 ‘적극적 우생학’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성형수술의 자유를 내세워, 개인은 키나 몸매와 같은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아이큐와 같은 정신적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도 ‘유전자 성형수술’을 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공학을 단지 질병 치료나 자율권의 관점에서만 바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이란 학문 자체가 신비의 영역인 생명의 세계를 과학 또는 공학으로 풀어보겠다는 야심이며, 생명공학 의술은 다른 의술과 달리 인간 자체를 선택 내지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공학은 생명의 영적인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은 정의의 핵심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올림픽 경기에서 약품 복용을 통한 운동성력 향상이 공정한 게임 규칙에 어긋나듯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 향상 역시 한 사회의 공정한 게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법에 의한 ‘맞춤아기’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선택’으로 ‘출생’을 ‘제조’의 개념으로 바꾸어, 인간 또한 하나의 ‘제품’으

## ‘생명 살린다’ 명목 또다른 생명 살상

로 만들어낸다. 인간 존엄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이 공정한 게임 규칙에 어긋나듯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 향상 역시 한 사회의 공정한 게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생명윤리 부재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적 이익’을 강조하는 반면에 “살마 그런



김상득 전북대학교수 윤리학

이” 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윤리학적 사회학적 성찰 없는 생명공학 연구 및 이용은 생명을 살리는 공학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공학이 될 것이다. ‘게놈’이 되어 인간 사회를 갈기 갈기 찢어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생명공학자들에게 대한 생명윤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공학이 함축하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통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과학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 열·린·마·당

군포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0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사스님, 포교원장 정현스님 등 종단 및 포교원 관계자들과 군포법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포교원내 군불교위원회 설치”

상운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현재 120여명의 군승이 500여 군법당을 관리하며 15만 군불자의 신행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포교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만큼, 미래 군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군불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마련하게 됐다.

군승은 종단의 필요에 의해 국방부에 파송된 스님이다. 스님을 군대에 보낸 것으로 종단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역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종단이 불안정해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종단이 안정을 되찾았고, 군불교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 군포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후원단체 관리 등을 전담할 종단 공식 기구를 설치할 여건이 성숙되었다. 군불교위원회는 바로 이런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군승 선발 및 제반 업무를 전담해 온 포교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군불교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역시 군포교에 인력을 가진 법사 20년 이상의 비구로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스님이자 군인의 신분을 가진 군승이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군내의 지휘계통상 군불교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승의 진급, 전보 등에 문제가 많아 군포보다는 스님이 군승 활동평가를 기준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포상과 상벌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교원의 내내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포교이다. 전국의 대학생, 청년활동이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지금, 군포교는 바로 그 돌파구의 열쇠가 되겠다. 32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사회(종단)에도 회향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 군포교 제도개선 어떻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장 선출 및 관리체계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포교원과 군승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양측의 입장이다.

### “위원회 독립적 권한·책임 필수”

전창용법사(군승단 제도개선위원장)



군불교는 미래의 거사불교를 개척하는 불사인 동시에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가치가 크다. 그러나 군승의 수급 및 교육의 부재, 불자 신도의 조직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종합적인 군불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군포교 제도개선을 위해 종단 내에 군불교를 전담하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고 군승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군불교위원회령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원 9조 2항에 군승은 조계종 소속의 승려임을 밝히고 있다. 승려로서의 신분에 대한 통제는 총무원이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포교원이 직접 군승단의 일반 행정업무까지 관장하는 형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군불교위원회를 포교원 산하 기구로 두기보다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물론 군불교의 후원금 지원과 군승단과 연계한 포교정책 수행도 필수적이다. 또한 ‘위원회’ 자체의 기능은 지휘·통제기능이 아니라 조정·감독·지원하는 기능으로 명칭도 문제다.

이에 군승단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군불교위원회는 군승단을 지도·감독 및 군승 지원을 선발관리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현재의 군승단 업무는 현행대로 군승총회를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불교위원장을 법사 20년 이상의 군승출신으로 군승총회를 거쳐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과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진급, 보직, 장기복무 등은 군의 고유한 기능으로 군불교 인사조정위원회의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군불교 예산의 확보 및 시행 방안과 진급 등 타 종단에 군승을 개방하는 등 수급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은 99년 8월 설치한 군포교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의 성과물을 토대로 군불교위원회 출범을 위해 올해만도 5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금까지 군불교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장 선출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군포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서로의 입장을 규명하게 드러냈다.

현재 서로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선출문제다. 포교원은 군불교위원장을 군포교에 경험이 많은 법사 20년 이상의 비구스님 가운데서 포교원장이 선임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해불사건 등 군내 종교관행이 일어났을 때 군승은 군에 소속된 신분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원장은 군법사가 아닌 스님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선출 포교원-군승단 입장차 뚜렷

그러나 군승단은 군을 잘 이해하는 법사 20년 이상의 군승출신 비구를 군승총회에서 선임해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하고, 인사문제는 군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현재 설치령에 명시된 군불교 인사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계종이 자신들을 휘어잡으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군승단은 비구스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결혼한 군법사들은 진급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해 위원장 선임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불교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포교원과 군승단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포교원은 그동안 군승 선발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 왔고, 조계종 포교업무를 전담하는 성격상 당연히 군포교도 포교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승단은 군불교위원회를 포교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군승을 포교사로 간주하려는 것이냐 다물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군승단은 군승도 조계종 승려인 만큼 군불교위원회가 총무원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5사단 김창무 법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군포교의 중요성과 군승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군불교위원회를 총무원 산하에 설치하던가, 아니면 군승특별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군승을 다른 종단에 개방하는 문제, 군불교 후원금 확대, 전역한 군승에 대한 신분보장과 활동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불교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자간의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두식 기자

##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로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뮌트라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날부터 氣치로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쓰는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뮌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로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수

이러한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 720-5682 / 725-2311 팩스 : 725-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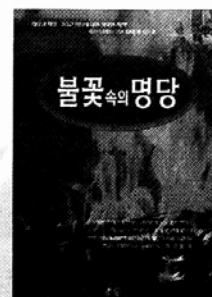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매장과 화장, 그리고 명당에 대한 정확한 지침!

## 불꽃속의 명당

대대로 이어 내려온 묘지문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매장풍습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우주의 이치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인과법칙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매장과 화장했을 때의 득과 실
- 매장을 했을 때의 열 가지 나쁜 일
- 화장을 했을 때의 열 가지 이익
- 명당과 협을 잡기 어려움
- 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
- 죽을 뒤에 무엇이 오는가

만성스님 지음/값7,500원

잘못된 묘지문화로 인한 영가 주는 피해,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쉬운 문제로 엮고 있다.

### 초롱

주소: 서울시 중로구 관촌동 146-2  
전화: (02) 738-5791, 730-0235  
팩스: (02) 722-8114  
http://www.chorong.com

## 애미탈은 광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섬불문은** 정토 서방에 두고 그 곳을 가리키니 상(相)을 세운 것이요, 마음을 모아 정토의 경계를 취하고, 명호를 부르게 하니 이는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염불문은 번뇌구족의 범부가 무상무념의 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상유념의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펴보신 최후의 가르침이다.

**정토신앙은** 철학을 바탕으로 신심으로 일컫어 애미탈을 염(念)하는 자는 누구든지 광명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 정토로 인도한다.

염불행자는 현재에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안심을 얻고 불과 지혜가 증경되는 창조적인 삶이 보장되며 내세에는 결정코 성불에 이른다. 생애에 종사하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염불수행 한 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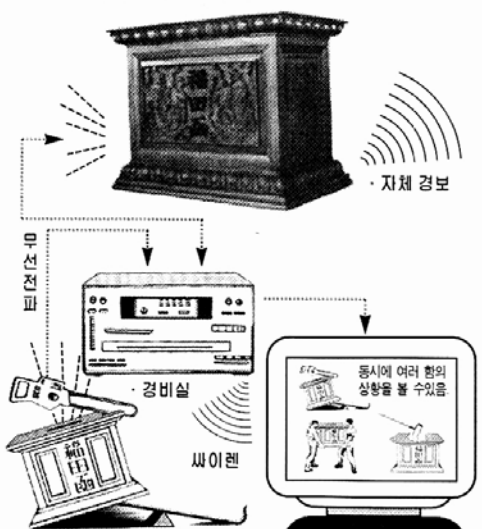
정토신앙은 인류 종교사에 동서고금을 관통하며 적악으로 신음하는 사회를 구원하고 천만년 역사를 창조해 나아갈 희망의 종교이다. 정토신앙의 부활을 염원하는 정목스님이 염불수행의 이론과 실천체계를 정리하여 널리 보급하며 권합니다.

- 제1권 정토에 태어나 성불합시다. (조양 6,000원)**
- 출판부 (051)462-9121
  - 영업총판 삼정원(051)248-3582
- 제2권 염불신앙의 원리와 비결 (경서인 7,000원)**
- 출판부 (02)733-3345

염불신행 상담: (052)289-8056 • (033)254-5397

## 법당 경비 전용 불전함

도난방지장치 ◆특허 2000-0011559◆



- 강제 개폐시
- 발도의 장소
- 특수 전자 장치가 내장된 현재 금고에 위부는 통과조각으로 절할 수 없습니다 (리모콘으로만 개폐됨)
- 동시에 여러 명의 상황을 볼 수있음
- 법당내 평안한 지역을 침입하면 화재 요란 경보와 함께 경비실 및 경찰에 타 장소로 무선으로 침입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음성)
- 주-이 감시 센서가 형식 지동 작동되며, 전원 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개폐기능 마비되고 경보는 계속됩니다.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 043-647-2378, 011-467-1472